

제5회 한국조리과학회 러시아 및 체코 음식문화탐방

경희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이경희

세계 제일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웬지 무섭고 낯설고 영화나 뉴스에서만 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러시아로의 여행은 시작하는 첫날부터 대부분의 참가자들 사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고, 그토록 아름답다고 들어왔던 체코 프라하에 대한 기대는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200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이어진 7박 8일간의 일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으며 무엇을 먹어보았는지 기억을 되살려 되도록 실감나게 적어보고자 하였다.

첫째 날 - 6월 27일

4시 35분에 인천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모스크바 공항은 비좁고 어두컴컴한 조명이 우리나라의 국내 공항보다도 못하게 느껴졌다. 입국심사 시 심사원들이 어찌나 더디고 거친 태도로 일을 하는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커녕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항을 빠져 나오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시설과 서비스 수준에 공지를 느끼게 되었다. 공항 밖의 모스크바는 때마침 백야축제 기간이라서 저녁 11시 반인데도 석양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처럼 밝은 분위기로 신비스러움을 안겨주었다. 가이드를 만나 버스로 20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한 호텔은 문 한 곁에 서있었던 아름다운 퀼트로 만든 동화 속의 용궁 같은 장식의 눈을 즐겁게 하였고 호화스럽지는 않았지만 고단한 여장을 풀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둘째 날 - 6월 28일

호텔 조식을 마치고 모스크바 중심의 크렘린 궁전이 있는 붉은 광장을 향해 버스에 올랐다. 날씨도 목적지에 걸맞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듯 흐렸으며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862년 바이킹족에 의해 건국된 러시아는 988년에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인 키예프 시대에 이르러 정식 국가가 되었으며, 모스크바는 키예프러시아가 쇠퇴되어 가던 중 동북부 지역의 수즈달리를 중심으로

생긴 독립국의 첫 번째 지도자 유리 돌고루키에 의해 1147년에 창건되었다. 돌고루키란 “긴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넓은 영토를 점령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높은 지대를 둘러싼 성벽”이란 뜻으로 몽고족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러시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요충지마다 성벽을 세웠던 것이다. 그 중 타타르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세운 모스크바의 크렘린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곳은 오랫동안 소련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원래는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의미였으나 러시아 혁명(1917년) 이후 이름이 바뀐 붉은 광장의 왼쪽에는 길이 2,235미터, 높이 9~20미터, 두께 4~6미터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붕 위의 첨탑에는 루비로 만든 별이 5개나 달려 있는 크렘린 궁전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궁전 앞쪽에 붉은 대리석으로 만든 레닌의 묘가 놓여 있었다.

광장의 오른쪽에는 있는 바실리 사원은 세계 3대 이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이며 이반 대제가 몽고군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한 성당으로 높낮이와 모양이 다른 8개의 양파모양을 한 둥근 지붕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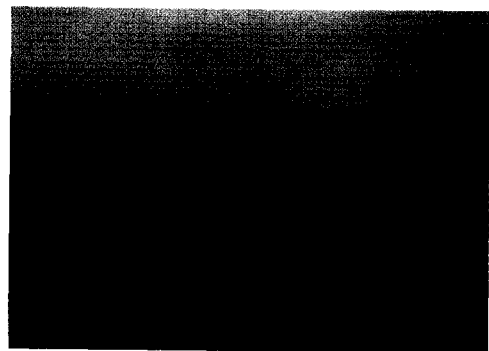


사진 1 바실리 사원

1812년에 나폴레옹이 들어왔다고 하는 크렘린 궁전의 삼위일체의 문을 통과하여 처음 발길이 닿은 곳은 공산당전당대회회장이었다. 지금은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의 정면 위에는 지휘봉과 지구를

쥘리고 있는 쌍두마차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제3의 로마인 러시아가 종교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궁전 안에는 12사도 성당과 성모 승천 성당인 우스펜스키 성당, 황제 전용 성당인 수태고지 성당, 대천사 성당이란 뜻의 아르한젤리츠키 성당 등이 있었다. 수태고지 성당 안에는 나무에 왕과 순교자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콘(icon)으로 만든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죄가 많은 곳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르한젤리츠키 성당에서는 정오에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하모니의 성가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주신 가장 좋은 약기는 목소리이므로 성가를 부를 때 약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르는 형식은 러시아 정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잠시 러시아의 문화의 특징을 둘러보는 동안 비는 그치고 밝은 햇살이 비추었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러시아 정통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점심에 스프를 먹으며 식사의 코스와 조리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 끼 식사로 영양적 균형이 잘 맞추어진 음식이었다.

【점심메뉴】

◆스프(보르쉬) : 보르쉬는 당근, 비트, 양배추, 양파, 감자 등을 채 썰어 볶아 돼지고기나 소고기육수를 넣고 끓인 후 고수나 파슬리 등을 다져넣고 “스메타나”라고 하는 sour cream을 얹어서 먹는 러시아의 정통 스프이다. 비트가 들어가 붉은 빛을 내는 이 스프는 비트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므로 건강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매우 즐겨 먹는다고 한다.

◆샐러드와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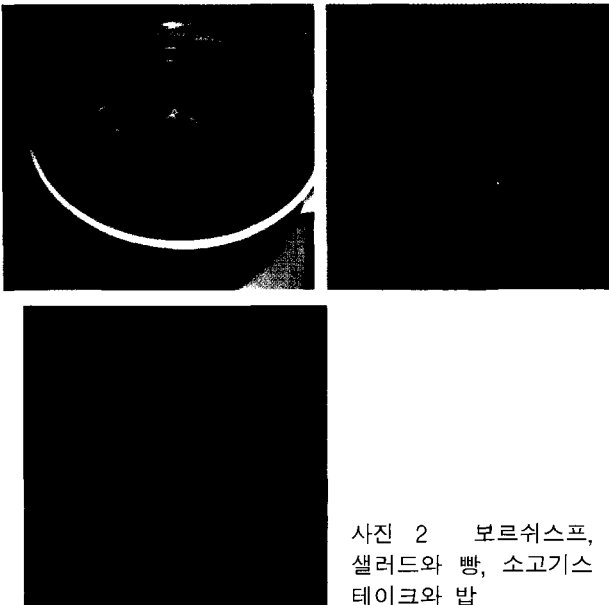


사진 2 보르쉬스프, 샐러드와 빵, 소고기스테이크와 밥

◆소고기 스테이크와 밥 : 밥은 “뽕볶”이라고 하며 허브를 넣고 기름에 볶아 물을 약간만 넣어 지은 밥으로 우리의 볶음밥과 유사하다.

점심 식사 후 옛날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며 지금은 젊음과 문화의 상징인 아르바트거리를 거닐었다. 아르바트거리에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푸시킨이 살던 집이 있었고 푸시킨과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받았던 아내 나탈리아가 나란히 거리 한 곁에 서 있는 동상이 있었다.

푸시킨은 1799년에 태어났고 일찍부터 그의 천재성이 나타나 19세기 러시아 국민문학을 창조한 작가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의 작품 『삶』이란 시와 『대위의 딸』이라는 소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며 『예프게니오네킨』이라는 작품은 러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다루고 있으며 러시아인의 감정을 세련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잘 표현하여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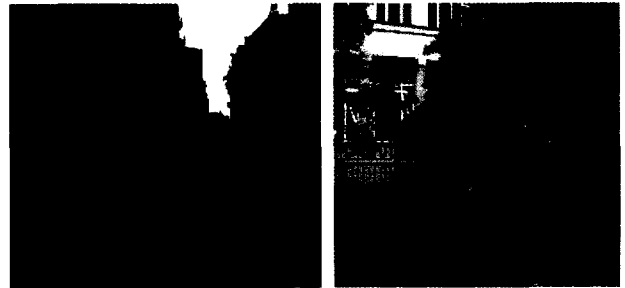


사진 3 아르바트거리

아르바트거리를 지나 어떤 산물들이 나오는지 알기 위해 “다가가밀롭스키”라는 재래시장으로 향하였다. 시장 어귀에는 말로만 듣던 철갑상어를 크게 도막내어 서너 개씩 들고 서서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개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을 둘러보고 시장 중앙의 큰 건물로 된 시장에 들어서니 너무나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많은 식품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토마토, 피망, 마늘 등 각종 채소와 장아찌를 비롯하여 희귀한 생선과 저장식품 등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재래시장을 나와 모스크바 대학을 잠시 구경한 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요리를 맛보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러시아의 음식은 독특한 것이 따로 있기도 보다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지역의 음식을 거의 유사하게 먹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음식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서 체구가 큰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분량에 놀라웠다.



사진 4 다가가밀롭스키 재래시장 철갑상어와 캐비아 상점(상), 채소가게 앞에서(하)

【저녁메뉴】

- ◆**샐러드(아짜르지아)와 가지요리** : 가지요리는 모양과 맛에서 우리나라의 가지무침과 매우 유사하였다.
- ◆**빵(리표시카)** : 도넛 모양으로 부풀게 구운 빵으로 쫄깃하며 담백하며 발효된 맛이 일품이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았다.
- ◆**라그만** : 우리나라의 육개장처럼 고기를 넉넉히 넣고 양파, 붉은 피망, 무 등의 채소로 국물을 내고 칼국수와 같은 국수를 넣고 끓인 후 잘게 썬 허브를 위에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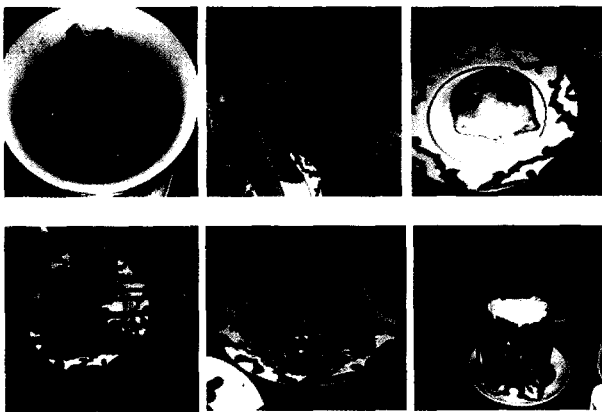


사진 5 라그만, 라표시카·샐러드·가지요리, 샐시(상) 샐시릭, 뿔록, 파인애플에 넣어 얼린 아이스크림(하)

- ◆**양고기 꼬치구이(샤슬릭)와 고기만두(삼시이)** : 샤슬릭은 양고기 꼬치구이로 터키의 쉬시케밥과 유사하며 양고기 특유의 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으며 1인분이 2꼬치로 고기의 양이 매우 많았다.
- ◆**기름에 볶은 밥(뿔록)**
- ◆**디저트** : 파인애플에 넣어 얼린 아이스크림

셋째 날 - 6월 29일

호텔에서의 서구식 아침식사를 마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셰르미체르보제2공항으로 향하였다. 거리 곳곳에 핑크빛 해당화가 탐스럽게 피어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 후 1917년까지 200여년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수도였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도시는 유럽 예술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 예술,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푸시킨은 “유럽으로 열린 창”이라고 표현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50여개의 대학 중 46개의 대학이 국립대학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은 푸친 대통령 내외가 공부한 곳이기도 하다. 일년에 겨울이 8달이며 해뜨는 날이 65일 밖에 없다는 이 도시는 인구가 모스크바의 절반인 500만이며, 귀족과 예술가의 집을 모두 박물관, 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65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의 4대 강 중 가장 아름답고 높이라는 의미가 있는 네바강이 흐르고 있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의 무대였던 센나야지역이 있고 환타가에는 양 옆에 핀란드에서 가져온 화강암으로 축조해 놓은 인공운하가 있다. 늦은 점심을 하기 위해 빠르나스라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식당 바로 맞은편 공원에 있는 표트르 3세 부인인 예카테리나 여제의 동상을 보았다. 독일의 공주였다가 표트르 3세의 부인이었다가 여자 황제가된 예카테리나는 문학자, 법률가, 정치가, 군인 들을 그의 아래 두고 정치를 펼쳤던 대단한 여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메뉴】

- ◆**스프(냉 보르쉬)** : 러시아인들은 이 스프를 우리의 냉국처럼 차갑게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 ◆**샐러드(오보쉬너이)** : 샐러드 드레싱에 해바라기 기름이 들어간다.
- ◆**돼지고기 요리(에스칼로프)** :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구워서 치즈를 올려 먹는다.
- ◆**크레페(블링)** : 얇은 밀전병에 꿀을 발라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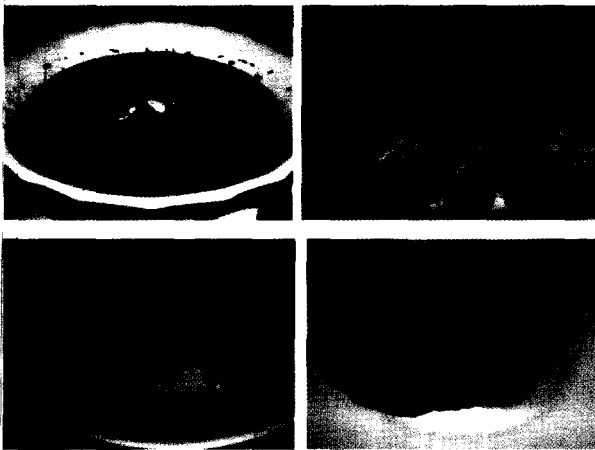


사진 6 보르쉬 스프, 샐러드인 오보쉬너이(상) 돼지고기 요리인 에스칼로프, 블링(하)

점심식사가 끝나고 페테르부르크의 문화, 상업의 중심지이자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히는 네프스키대로를 통과하여 러시아군의 영광을 상징하는 카잔 성당을 둘러보았다. 네프스키대로는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공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네프스키라는 칭호는 1240년 러시아 최초의 고대국가인 노브고로드 공국 시대에 호시탐탐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스웨덴에 맞서 싸워 러시아에게 승리를 안겨준 알렉산더에게 러시아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농노 출신의 건축가 바로니키에 의해 건축된 카잔성당은 사암으로 지은 건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검게 그을린 듯한 색을 띠게 되었으며 성당 안에는 1812년 나폴레옹전쟁 당시 나폴레옹에게 모스크바를 내주어 겨울에 굶어 죽고 일어 죽게 하여 승리를 거둔 쿠투조프 말렌스키 장군의 묘가 있었다. 카잔 성당을 둘러본 후 차이코프스키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묘가 있는 알렉산더네프스키사원에 들렀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스몰리사원의 스몰리여자기숙학교를 방문하였다. 스몰리여자기숙학교는 예카테리나 여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에게 엘리트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은 여성들을 외교사절로 활용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100년간 지속된 후 레닌혁명정부로 쓰다가 현재는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저녁식사를 위해 들러간 메트로폴이라는 식당은 전형적인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으로 전통무용과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관광객의 흥을 돋우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저녁식사 메뉴는 다음과 같다.

【저녁메뉴】

◆**에피타이저** : 고기모음(돼지고기, 햄, 닭고기 등을

젤라틴을 넣어 굳인 테린), 빵 위에 연어 알, 오이와 토마토 등을 얹은 오픈카나페

◆**구운빵(피로시나)**

◆**닭고기 요리(키에프식 커틀렛)** : 빵가루 묻혀 튀긴 닭고기와 볶은 밥, 밀가루로 만든 작은 틀에 화이트 스튜와 버찌나 체리로 만든 푸른 잼을 담아 곁들임

◆**고기와 채소요리(가르니르)** : 고기에 채소를 곁들인 요리

◆**후식 : 초코케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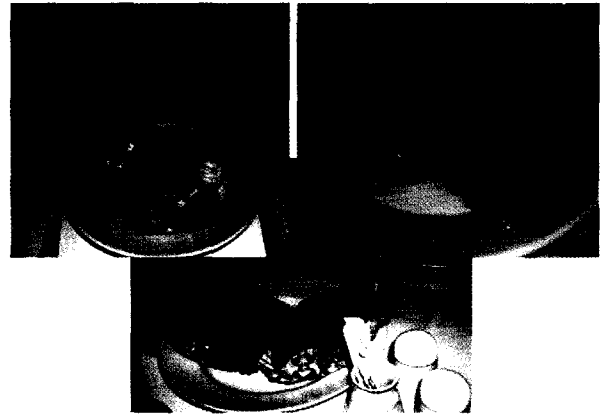


사진 7 구운빵과 에피타이저, 닭고기 요리인 키에프식 커틀렛

저녁을 먹은 후 뿌리발치스카야(Pribaltiskaya)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매우 규모가 크고 기념품 상점들이 화려하게 여러 곳에 늘어서 있었다. 러시아의 기념품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마뚜루나”라고 하는 겹겹이 들어 있는 러시아 인형이었다. 마뚜루나는 “마뚜루시카”라고도 하며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다산”을 의미한다고 한다.

넷째 날 - 6월 30일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처음 닿은 곳은 피터폴 요새(표트르 파브로프스키 요새)였다. 이곳은 표트르 대제가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해 가장 먼저 지은 곳이었다. 그 당시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웨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로를 정비하고 목책과 진흙으로 성벽을 만들었으며, 대포 2대가 있어 지금은 매일 정오에 쏘고 있으나 처음 150년간은 도시건설을 위해 일하러 나오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리는 의미로 하루에 2번 대포를 쏘았다고 한다. 이 요새의 가장 화려한 건물은 도메니코 트레치니가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은 피터폴 성당으로 표트르황제부터 니콜라이황제까지 가족의 무덤이 모여 있다. 이곳의 감옥은 “죽음의 문”이라 하여 혁명가들이 갇혔던

정치범 수용소로 유명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르트 대제의 아들 알렉세이가 최초의 수감자로 죽기 전까지 갇혔던 곳이며, 도스토예프스키, 레닌 등도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네바강변을 따라 길게 자리한 겨울궁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 겨울 궁전은 담녹색의 외관과 흰 기둥이 잘 어우러진 건축물로 라스트렐리에 의해 건축되었다. 이 궁전에는 1,056개의 방과 2,000여개가 넘는 창문이 있으며 지붕 위에는 170여개의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이 궁전 안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인 에르미타즈 박물관은 예카테리나 여제가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 미술품까지 300만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우울한 소년”, 모네의 조각 “영원한 봄”, 그림 “워털루의 다리”,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포도원지기들”, 라파엘의 그림 “성가족”, 화가 루벤스의 그림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심”, “술과 타락의 신 박카스”, 라피스의 그림 “동심”과 역광으로 그린 “새벽시장 가는 길”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한국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김홍수 화백이 그린 “승무”가 걸려 있었다.



사진 8 에르미타즈 박물관과 김홍수 화백의 그림 승무

에르미타즈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은 “문학카페”라는 곳으로, 푸시킨이 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프랑스 남작 단테스하고 결투하러 가기 전에 레몬차를 마셨던 곳으로 유명하다. 식당 안에는 감미로운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주가 연주되고 있어서 한껏 문학과 예술의 정취에 빠져들게 하였다.

【점심메뉴】

- ◆양배추스프(쉬) : 양배추가 많이 들어간 맑은 국물의 스프이다.
- ◆샐러드 :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의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이다.
- ◆생선 구이(수닥) : 농어 같은 흰살 생선을 구운 것.
- ◆구운 사과

◆차 또는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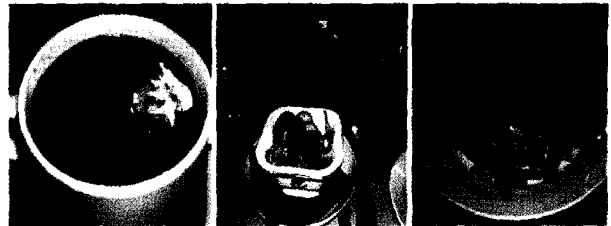


사진 9 양배추 스프, 빵과 샐러드, 생선구이인 수닥과 감자튀김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달려간 곳은 포르트 1세가 왕비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여름궁전 이었다. 이 곳은 러시아의 황제와 귀족들이 여름을 보냈던 여름 휴양지로서 “러시아의 베르사이유” 또는 “분수의 도시”라고 불리며 20여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로 꾸며진 아름다운 궁전이였다. 이 곳에서 보로딘, 차이코프스키, 고골리, 도스토예프스키, 푸시킨, 투르게네프 등과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한다.

저녁식사는 “칼링까”라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품위있게 하였다. 식사 후에 오페라, 발레 등의 문화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본고장에서 “백조의 호수” 발레 관람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극장을 나오니 밤 11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햇살이 눈부셨고 우리의 행복한 마음을 알고나 있는 듯 하늘에는 큰 무지개가 떠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따라 다녔다.

【저녁메뉴】

- ◆에피타이저 : 연어와 연어알을 “블링”이라는 얇은 밀전병에 싸서 먹는다.
-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오리요리 : 구운 오리 서너 점과 곁들이 채소로 감자 삶은 것과 커리플라워 데친 것 호박과 가지 구운 것, 방울토마토 등이 곁들여 나온다.
- ◆디저트 : 아이스크림
- ◆음료 : 얼린 보드카, 와인



사진 10 에피타이저-연어, 연어알과 블링, 오리요리

다섯째 날 - 7월 1일

러시아에서의 마지막날로 예카제린 궁전의 호박방(Amber Room)과 이삭성당을 구경하고 오후 4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하여 뮌헨을 거쳐 저녁 10시에 체코 프라하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먼저 예카테리나 1세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예카제린 궁전으로 이동하여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화려함의 극치로 상징되던 호박방을 구경하게 되었다. 예카제린 궁전 2층에는 금장식이 달린 거울이 양옆의 벽을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무도회장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화려한 식탁과 함께 사냥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은 방과 음악 감상을 하는 연한 녹색 기둥의 방, 황제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 방 등이 이어지면서 호박으로 장식된 호박방을 볼 수 있었다. 원래 호박방을 장식했던 진품인 호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빼앗기 때문에 새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예카제린 궁전을 나와 약 10분간 걸어 인근의 전원풍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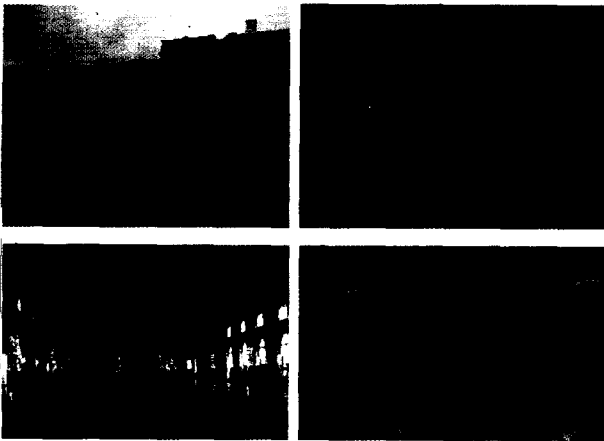


사진 11 예카제린 궁전의 식당으로 이용된 방, 무도회장, 호박방

【점심메뉴】

- ◆비타민 샐러드 : 상추 잎에 당근과 양배추를 채 썰어서 설탕 식초에 절인 것
- ◆보르쉬 스프
- ◆닭고기 요리 : 밥과 닭고기요리에 오이, 토마토, 배추 등의 채소를 곁들인 메인디시
- ◆디저트 : 아이스크림
- ◆음료 : 차와 커피

성 이삭 성당은 표트르 1세가 예카테리나 1세와 결혼한 곳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프랑스 건축가 몽펠랑에 의해 지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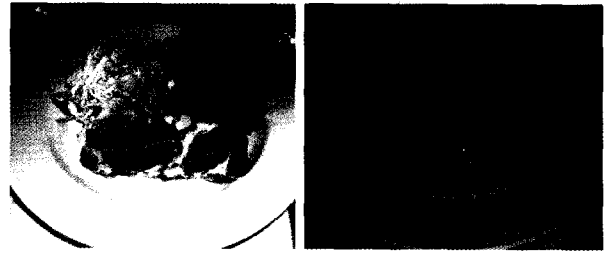


사진 12 비타민 샐러드, 밥과 닭고기 요리

것으로 3대에 걸쳐 40년간 지었다고 한다. 핀란드, 우랄산맥에서 가져온 43종류의 대리석으로 지은 이 성당의 높이는 101.5m이고, 23개의 돌기둥이 돔을 받치고 있으며 성전 안에는 청동음각주물로 만든 문이 있고 “성 예카테리나”를 그린 모자이크는 18,000개의 모자이크 색으로 만들어져 매우 색상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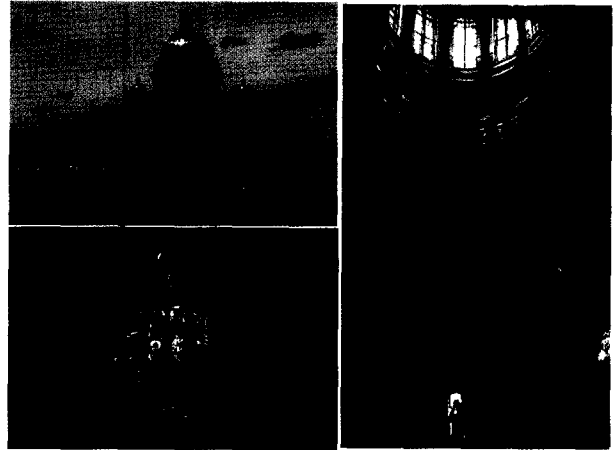


사진 13 이삭성당, 이삭성당 안의 돔, 모자이크된 스테인드그라스

여섯째 날 - 7월 2일

체코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프라하를 중심으로 서쪽의 프라하 인근 지역인 보헤미아지역과 그 밖의 지역인 모라비아 지역으로 구분되어 체코의 대표적인 문장인 “꼬리두 개 달린 사자” 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독수리” 등은 이 두 지역을 상징한다고 한다. 체코 사람들이 잘 마시는 세 가지 술에는 빼보라고 하는 맥주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 카를로비바리는 온천지역에서 나는 위장에 좋다는 약주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마시는 맥주인 버드와이저의 원산지가 체코라고 한다.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도시 안에 첨탑이 100개 있다고 하여 백탑의 도시로 불리는 프라하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구시가지의 바츨라프 광장 끝에 있는 화약탑이었다. 화약탑은 1457년에 고딕양식으로 세

워진 건축물로 구시가지를 지키는 성벽에 있던 문 중의 하나로 17세기경에는 화약창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다시 버스에 올라 프라하 남서쪽으로 약 28Km 떨어진 전원지대의 언덕에 위치해 있는 요새인 카를슈타인 성으로 향했다. 카를슈타인 성은 14C 체코의 가장 전성기인 1343년에 보헤미아 왕 카를4세가 지은 곳으로 카를4세가 휴가철에 집무를 보던 곳이며 현재도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서 현지 가이드가 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모든 관광객이 빠져나온 것을 확인한 후 자물쇠로 잠그고 다음 장소를 안내하는 식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였다. 카를 4세는 프라하의 2대 관광지로 아침 일찍부터 각국의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는 카를다리를 만들었고 프라하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카를슈타인 성을 관광하고 언덕을 내려와 인근에서 처음 먹은 체코의 음식은 다음과 같은 평범한 양식이었다.

【점심메뉴】

- ◆ 양송이 스프
- ◆ 돈가스와 으깬 감자
- ◆ 체코식 팬케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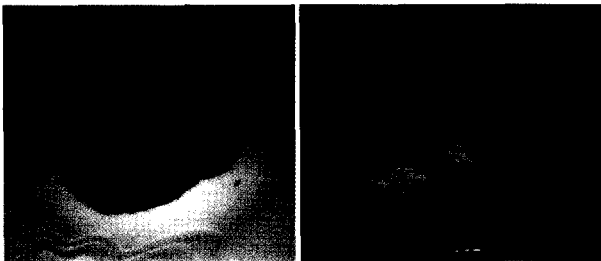


사진 14 돈가스와 으깬 감자, 체코식 팬케익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중세의 우장함과 섬세함이 깃든 프라하 성으로 갔다. 프라하 성은 블타바강(몰다우강) 옆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며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프라하 성의 첫 석조 건축인 성모 마리아 교회가 건립된 후 카를4세에 의해 1343년에 성 비트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1929년에 간신히 완성되었다고 한다. 프라하 성은 9세기 말부터 프르제미슬리드 왕국의 중심지며 체코 민족의 상징으로서 많은 통치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성이 권력을 거머쥐게 되는 열쇠로 인식되어 1178년부터 1193년까지 여섯 차례나 전투의 장이 되기도 했고 200년간 불안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진 15 프라하성

15~16세기에 가톨릭교와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유럽의 종교전쟁이 처음 시작된 곳이며 군인들의 숙소가 있었다는 황금소로를 지나 프라하성을 나오면 블타바강에 걸쳐있는 아름다운 카를교가 나온다. 카를교는 카를4세가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길이가 500m이며 다리 난간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장식되어 있고 악기 연주가 담겨있는 CD를 팔기 위해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상인들과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들, 악세사리나 장식품을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등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는지 교수님 한 분이 독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서너 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같이 찍는 바람에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카를교를 거닐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간 곳은 섬에 떠 있는 듯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6코스의 보헤미안 정통 음식을 내놓는 곳이었으며 식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녁메뉴】

- ◆ 파인애플과 프랑스식 크림치즈 롤
- ◆ 테린 : 사슴고기로 만든 테린
- ◆ 양송이 크림스프
- ◆ 씨 푸드 : 지중해의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따뜻한 에피타이저
- ◆ 닭고기 요리 : 영계를 이용하여 만든 red pepper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
- ◆ 디저트 : 무스케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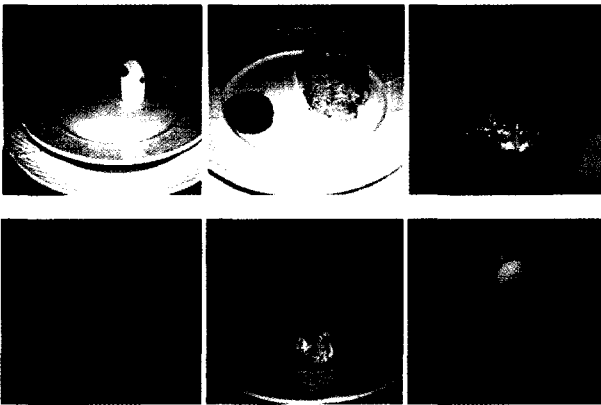


사진 16 파인애플과 프랑스식 크림치즈 롤, 사슴고기로 만든 테린, 양송이크림스프(상), 씨푸드, 닭고기요리, 무스케익(하)

일곱째 날 - 7월 3일

프라하의 구시가지에 있는 바츨라프 광장은 화약탑을 지나 양옆의 크리스탈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골목길을 지나면 나타나는데 길이 750m, 폭 60m 가량의 아담한 구시가 광장으로 이 광장의 한 옆에 지금은 결혼식장이나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시청 건물이 있고 중앙에는 보헤미아안호스의 동상이 있다. 보헤미아안호스는 루터 이전부터 종교개혁을 주장하다 사형되었으며 체코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다. 이 광장은 또한 1621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귀족 27명이 광장 앞에서 처형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 광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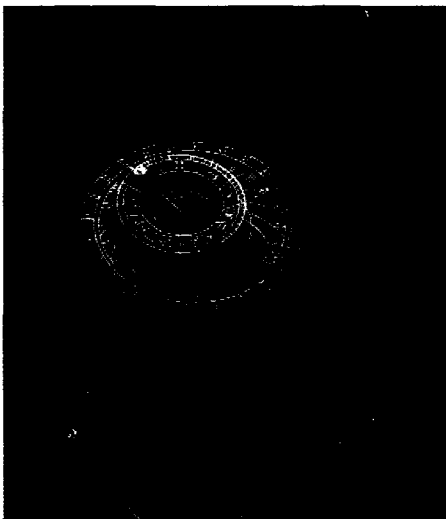


사진 17 천문시계

가장 많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멎게 하는 것은 천문시계인데 이 천문시계는 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야누스라는 장인을 비롯한 3인의 장인에 의해 완성되었고 원본은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고 한다. 매시 정각이 되면 천문시계 위에 있는 해골 아저씨가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줄을 잡아당겨서 창문이 열리고 그 창문 앞을 12사도가 차례로 지나간 후 창문 위의 금으로 만든 닭이 울며 종이 울린다. 인간의 속절없음을 경고해주는 이 천문시계는 야누스가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시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눈이 뽑혔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바츨라프 광장 근처의 레스토랑은 사냥과 관련된 물품들을 장식해 놓은 테마 레스토랑 같았다. 그 곳에서 와인으로 건배를 하며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만끽하였다. 식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점심메뉴】

- ◆크림스프
- ◆편빵(크네들리티)
- ◆햄과 닭고기 구이
- ◆비트절임
- ◆감자 사우워크라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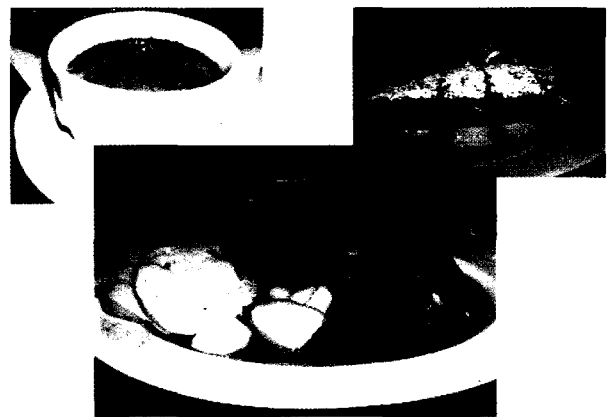


사진 18 크림스프, 편빵인 크네들리티(상), 메인디시-햄·닭고기, 비트절임, 감자, 사우워크라우트(하)

점심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현지 시각 오후 4시 55분에 프라하를 떠나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 후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7월 4일 오후 1시가 넘어서였다.